

MÉXICO

한인신문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T: 5789-2967 / 5522-5026 haninsinmun@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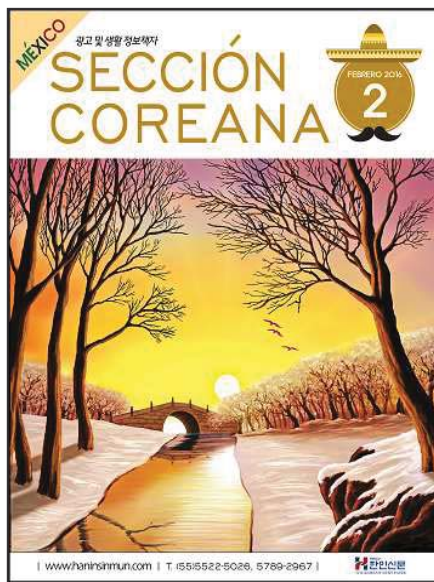
PERIODICO COREANO EN MEXICO www.haninsinmun.com

신개념의 새로운 광고 및 생활 정보책자

México

SECCION COREANA

멕시코 주요도시에 모두 배달되는 전국지(全國誌)입니다.



Mexico

관광정보/생활법률/교민 업소록/교민소식

배달되는 주요 도시명 Principales Ciudades de Distribucion en Mexico

Mexico City / Guadalajara / Monterrey / Queretaro / Puebla / Veracruz / Oaxaca / Morelia / Tijuana / Leon / Chihuahua / Zacatecas / Toluca / Cancun / Tampico / Merida / Chiapas / San Luis Potosi / Aguas Caliente / Tampico / Quintana Roo / Chetumal / Manzanillo / Acapulco / *일부도시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을 멕시코 전국에 홍보해 드립니다.

광고 및 구독 문의
5522-5026, 5789-2967
www.haninsinmun.com

*지방에서 정기구독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한인신문사, 15년 역사의 '한인매일 신문사' 인수 합병

12월29일까지 발행, 한인매일 구독자 및 광고주 그대로 인계받아 피해 없도록 조치

멕시코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 교민 신문이었던 '한인매일 신문사'를 '한인신문사'가 인수, 합병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이만복 한인매일 발행인과 본지 발행인은 지난 12월14일 모처에서 만나 한인매일 인수 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인매일은 오는 2016년 12월29일(목요일)까지만 발행하고 일간지 발행을 멈추게 된다.

한인매일을 인수하면서 멕시코에는 한인신문이 유일한 일간지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한인매일의 모든 권한을 인계받은 한인신문에서 주간지(컬러판)로 전환, 발행할 계획이다. 즉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훌륭한 주간지로 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이미 'SECCION COREANA' 발행을 통해 그 저력을 입증한 바 있는 한인신문은 '주간 한인매일'을 좀 더 성숙한 신문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곧



▲ 15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교민들의 눈에 익숙해진 한인매일 신문의 로고는 멕시코 교민일간지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제 '한인신문사'에서 '주간 한인매일'을 발행하면서 사용하게 될 한인매일 로고는 그 명성에 걸맞게 새로운 시도로 다시 독자들을 찾아가게 된다.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주간 한인매일'이 발행되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풍부한 정보제공으로 최고의 주간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게 된다.

아울러 한인매일 신문사에 광고를 내고 있는 광고주와 구독자는 한인신문에서 일괄 인계받아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계획이며 한인신문과 한인매일이 합쳐지면서 멕시코 전

교민들에게 신문이 배달되는 것은 물론 한인신문으로 일간지가 통합되면서 광고의 혼란과 부담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12월29일자로 마지막 일간지를 내보내게 되는 한인매일 신문사를 한인신문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일간지 한인신문과 주간지 한인매일, 월간지 SECCION COREANA를 발행하는 종합지로 우뚝 서게 된다.

(관련기사 3면)

한인신문사, 한인매일 신문사 인수건 관련 공지문

한인신문사가 2016년 12월30일부로 '한인매일 신문사'를 인수,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한인매일을 구독하시는 구독자와 광고주 분들에게서는 한인신문에서 일괄적으로 인계를 받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배달 주소록 인지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며칠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인신문과 한인매일로 일정부분 나누어져 있던 배달지역이 모두 통합되고 광고주가 모두 한인신문 일간지로 이

관되면서 앞으로 관리와 운영이 훨씬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유일한 일간지로 거듭 태어난 한인신문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신규 구독(광고)을 원하시거나 구독(광고) 취소를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신문사 임, 직원 일동

신규 구독(취소)문의: 5522-5026, 5789-2967(사무실)
044-55-6709-4554 고명례 이사

2016 법정 공휴일

Dia festivo legal (Dia de descanso obligatorio)

1월 1일	신년	5월 10일	어머니날(*비공식)
2월 1일	헌법의 날	9월 16일	독립기념일
3월 21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일	망자의 날(*비공식)
3월 27일	부활절(*비공식)	11월 21일	혁명의 날
5월 1일	노동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비공식)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비공식)	12월 25일	성탄절(*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아닌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20.30	살 때	1,233
팔 때	21.05	팔 때	1,191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안내

번호판	끝자리검사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신원도용 폭증, 수천명 빛더미에 올라 앉아

개인정보의 디지털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이동기기를 통한 온라인 구매 등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는 신용 도용 범죄 앞에 멕시코 주민들을 취약한 상태로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ONDUSEF (금융소비자보

호원)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5만2천건이 넘는 신용 도용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CONDUSEF측은 "예전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도용한 후 은행에 직접 가서 금융서비스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면, 요즘에는 비밀번호 하나만 알아내면 피해자의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다"고 하며 신용 도용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만 해도 CONDUSEF에 신고되던 금융 문제들은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결재와 관련된 사건들 뿐이었다.

2011년부터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크레딧 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2011년 한 해 동안 2,072건

의 신고가 접수됐다.

2014년 부터는 또 다른 사기 수법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수법인데, 2007년에는 94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는 9배로 폭증한 것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CONDUSEF에 접수된 신원 도용을 통한 대출과 관련된 사건은 9천84건에 달한다.

멕시코, 휘발유 가격 20% 오른다...18년만에 최고

휘발유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산유국 멕시코가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을 최대 20% 올리기로 했다.

멕시코 재무부는 27일 내년 1월부터 마그나 휘발유 리터당 평균 소매 가격을 이달보다 14.2% 높은 15.99페소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은 이달 대비 20.1% 오른 17.79페소, 디젤 가격은 16.5% 상승한 17.05페소에 각각 판매된다. 이 같은 휘발유 가격 인상은 1998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가격 인상은 내년 2월 3일까지 적용된다. 같은 달 18일까지는 격주마다 최고 가격이 고시되며, 18일 이후에는 매일 최고 가격이 정해진다.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 재무장

관은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중요한 변화"라며 "휘발유 가격에 비용이 반영되고 인위적인 왜곡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고 설명했다.

앞서 멕시코 에너지 규제위원회는 이달 초 연료 가격 자유화가 3월 말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차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멕시코 정부가 연료 가격을 정하던 관행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한편, 멕시코는 산유국이지만 정제 시설 등이 부족하다. 이때문에 원유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정제된 휘발유 등을 수입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정제유가 원유 수출보다 많았다.

게다가 범죄조직의 휘발유 절도, 일부 정유시설 가동 중지, 페멕스 사의 영수증 발급 시스템 변경 탓에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마약범죄 조직이 송유관에 불법 시설물을 부착해 휘발유를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멕시코 에너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휘발유 절도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자조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 하루에 평균 2만 배럴의 휘발유가 절도 당해 국가적으로 매일 400만 달러(한화 48억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입소문 난 멕시코 소녀 성인식 사망사고로 끝나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탄 멕시코 15세 소녀의 성인식 파티가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지만, 사망사고로 빛이 바랬다.

27일 일간 엑셀시오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비 이바라의 성인식을 겸한 15세 생일파티인 '퀸시네라'가 전날 수천 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 중부 산투스 포토시 주의 시골 마을인 라 호야에서 열렸다.

루비는 자홍색 드레스와 흰 왕관을 쓴 채 파티장에 등장했으며 현지 언론들은 루비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롯해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앞다퉀 전했다.

앞서 아버지 크레스센시오 이바라는 이달 초 페이스북에 딸 루비, 아내 아넬다 가르시아와 함께 찍은 45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오는 26일 딸의 성인식에 누구든지 오라"며 "우승자에게 1만 페소(약 59

만 원)의 상금을 주는 경마 이벤트도 열겠다"고 밝혔다.

공개 초청 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바이럴(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퍼뜨리는 일)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130만 명이 이상이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화제가 됐다.

루비는 이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멕시코의 한 항공사는 루비의 거주지 인근까지 가는 항공권에 대해 3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유명 디자이너들이 루비가 생일에 입을 드레스를 만들어 보내줬고 유명 배우와 가수가 생일파티 초대 동영상을 패러디한 비디오와 축하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이날 루비의 화장은 멕시코 대통령의 부인인 앙헬리카 리베라의 화장전문가인 알폰소 와이즈만이 해줬다고 밀레니오가 전했다.

그러나 루비의 행복한 생일 파티는 사망사고로 빛이 바랬다. 2명의 축하객이 경마 경기 도중 말에서 떨어졌고 이 중 한 명이 숨졌다. 다른 한 명은 다리가 부러졌다. 이 사고 소식 역시 인터넷을 통해 바이럴됐다.

달러 환율, 최고기록 경신 중

달러환율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2월 27일 멕'시티의 시중은행에서는 1달러당 환율율이 최고 21.17페소를 기록했다. Scotiabank와 Bancomer에서 이 최고가로 매도가 되었고, 매입은 19.45페소로 거래

되었다. 유로화는 전날보다 0.11페소가 오른 22.13페소로 매도되었고, 영국 파운드화는 25.92페소 그리고 일본 엔화는 0.204페소에 거래되었다.

금일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에서 발표한 기준환

율은 20.7052페소였다.

12월 27일 멕'시티의 각 시중은행별 매입 및 매도 환율은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있다.

연말과 새해에는 이런 환율 등락폭이 심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O-MART BUEN FIN 행사 12월 말까지

주름 미백 기능성 스킨로션 명품 3종 세트 <임금님표 "쌀"원료 명품세트>

1. 워터 밸런싱 에멀전(로션) 2. 워터 랩핑 크림(영양) 3. 워터 밸런싱 토너(스킨)



\$ 1,499
사은품 : 콜라겐 클렌징

기초 화장 3종 세트

1. 2IN1 컬러컨트롤 파워팩트 2. 2IN1 립&치크 3. 클라우드9 블랑드 화이트닝 크림



\$ 1,099
사은품 : 알로에 수딩젤

클렌징 4종 세트

1. 진주 클렌징 2. 콜라겐 클렌징 3. 알로에 클렌징 4. 알로에 베리수딩 젤 (여드름 방지/피부진정 보습젤)



\$ 599
사은품 : 게르마늄 마스크팩

썬블럭 및 CC(BB)3종 세트

1. 티아라아쿠아 썬크림 2. 티아라아쿠아 썬크림(여행용) 3. 자빈 CC컬러 체인지 크림



\$ 599
사은품 : 클린G 때비누

주소 : Londres #179, 2 PISO Col. Juarez D.F (소나로사) 문의. 5512-0056

그 잘 나가던 '한인매일 신문사' 는 왜 일간지를 접게 되었을까?

지난 12월 어느날 한인매일 신문사 이만복 발행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상의할 것이 있다"는 말에 약속은 다음날로 곧바로 잡혔고 우리는 오후 4시경 모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이미 지인으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은적이 있어 그가 무슨말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있더라 나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같은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그의 입장이 이해되었기에 결코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낼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그는 내가 앉자마자 그의 성격에서 나타나듯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신문사를 그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중략)

모든 얘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최종 발행일자를 알려왔다. 그날 만남이 한인매일 신문사를 인수하게 된 과정이다.

그렇다면, "그 잘 나가던 한인매일이 왜 일간지를 멈추게 되었을까?"

의문이 들기에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 회상해 보았다.

약 15년 전인 2001년6월28일에 첫 창간호를 발행한 한인매일은 최초의 교민신문으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초기에는 호감도와는 달리 많지 않은 광고시장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몇 년의 조정기간을 거쳐 비로소 안착하게 된다.

'첫 교민신문'이라는 상징성

과 고국소식에 목말라하던 당시에는 신문이 매일같이 배달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로 치부되던 시기였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한인매일 신문은 2014년 한인매일 편집부장으로 재직하던 임성민씨(현 주간지 발행인)가 맡으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게된다.

당시 한인신문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던 한인매일 광고수주는 임성민씨가 맡은 후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올리겠다는 의사표시로 위기감을 느낀 한인신문이 2014년1월부터 본격적인 경쟁선포로 경쟁이 촉발하게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인매일 신문사를 인수하고자 했던 한인신문은 더이상의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임성민씨의 '광고비 단독인상'이라는 강공에 2014년 2월7일부터 공격적인 영업력을 동원하면서 약 6개월이 지나자 '광고수주 역전'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된다.

(광고비 단독인상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광고주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당시로서는 후발주자인 한인신문의 광고 취소를 하게 되는데 임성민씨는 바로 이점을 노린 것이다.

즉 "한인매일에서 광고비를 인상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이 한인신문의 광고를 뺄 것"이라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도 경기가 어려우면 하위 신문 광고를 빼는것이 일반적이다. 한인매일에서 광고비를 인상하면 할수록 한인신문에 대한 광고를 더욱 많이

취소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의미인 것이다.) 그 악의적인 저의(우리 신문사를 문닫게 하겠다는)에 우리신문사는 분노했고 이런 위기의식에 한인신문은 지금까지 인수를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가능한 경쟁을 자제했지만 임성민씨가 맡으면서 본격적인 경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경쟁의 효과는 분명했다.

하루가 달리 광고주들과 구독자들이 한인신문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대역전'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인신문이 최고의 신문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를 임성민씨가 마련(?)해 준, 그는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인 셈이다.

편집부장으로 있던 임성민씨가 무상으로 신문사를 물려받아 운영했던 2년여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 '악몽' 그 자체였을 것이다.

비록 내부문제가 돌출되면서 이만복 발행인의 원대복귀, 새 전환점을 맞이하지만 임성민씨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한인매일신문사는 "상처투성이 였다"고 이만복 발행인은 회상한다.

몇 개월 치의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회사세금도 제때 신고, 납부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이 그를 기다리

고 있는 상황이었다.

연말 직원보너스는 모두 이만복 발행인의 몫이었다.

당시 몬테레이 코리아타운에서 광고비로 받은 1년치 광고비 \$174,000페소는 이런 부족한 돈을 메우는데 충분한 금액이었지만 그의 가정생활비로 들어갔다는 후문과 이로인해 사무실 월세는 계속 밀려만 간 것이었다.

인쇄를 위한 잉크가 없어 인쇄를 못할 상황으로 이만복 발행인이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인쇄잉크를 구매하는 일이었다. 사실이 그때의 상황

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당시에는 임성민씨의 부인이 신문사 재정을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당시 김은지씨는 삼성 현지 채용직원이었지만 "월급은 삼성에서 받고 일은 한인매일에서 광고영업과 수금을 하고 다녔다" 평을 받고있다. 실제 김은지씨는 한인매일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직원으로 활동했다.)

신문사로 들어오는 광고비는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되면서 한인매일이 더욱 어려워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다.

월등한 광고수주로 흑자를 보던, 탄탄한 신문사였던 한인매일 신문사는 결국 임성민씨가 맡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불과 2년만의 일이다.

당시만 해도 한인매일신문사는 '넘기 어려운 벽' '넘사벽'으로 통했다. 그도 그럴것이 한인신문이 2008년 창간된 이후 임성민씨가 맡기전까지 한번도 한인매일 신문사를 넘어선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대로 경쟁을 하지 않고 인수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한인매일이 가지고 있는 '절대 아성'이었다.

이런 경영능력인지라 한인매일 신문사에서 해고된 후 자신이 새로 발행한 일명 '엘 코레아노' 신문 역시 문을 닫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는 늘 시작은 창대했고 나중은 미약하게 결론이 난다.

한인매일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후 창간한 엘코레아노 일간지를 7개월만에 폐간하고 이제 또 주간지로 발행하는 그 주간 잡지도 지금은 "교민사회에서 박멸되어야 할 해충"으로까지 극단적인 평을 받고 있어 안타깝기도 하다.

신문을 너무 쉽게 창간하고 너무 쉽게 문닫는 지금의 전형으로는 결코 신문사로 자리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쯤에서 그도 깨달았을 것이다.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황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던 한인매일 신문사는 결국 한인신문이 인수, 주간지로 재탄생하게 되지만 그날 만났던 한인매일신문사의 이만복 발행인의 착잡한 표정에서 나는 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

비록 한인신문사가 인계를 받지만 "더욱 좋은 주간지로 발행해 줄 것"을 그는 무언의 표정으로 필자를 일깨웠기 때문이다.

한인신문 발행인 南 富 鎮

토스 송금

Toss



멕시코 송금
중국 송금
멕시코의

휴 무 안 내

12월26일 ~ 1월8일까지

임시휴무 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오사팔사독이글오오

오오사팔사독이글오오삼